

1 % 의 가 능 성 에 도 전 하 는 새 싹 벤 처 의 버 팀 목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 .

<Venture Digest>는 2005년부터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있는 새싹벤처와의 만남을 준비하였다. 꿈과 열정으로 뚝뚝뚝 배짱 하나로 선배 벤처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 미래의 벤처인들. 신년호에서는 그 첫 번째 만남으로 대학생 창업을 발굴·육성해 새싹 벤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를 찾아갔다.



코 션 주 요 사 업 창업 지원 사업

Young Leaders Now&Future, 대학생창업기업 IR사업, 연동홍보사업 등을 통해 리딩벤처기업과의 멘토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새싹벤처 기업의 투자금 유치와 홍보를 적극 지원 및 무료 상담.

창업 역량 강화 사업

교육세미나사업, 맞춤형교육사업, 창업스쿨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학생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과 관련된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해 새싹벤처 기업인들의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고취.

동 안 리 지 원 사 업

전국 12개 지역 246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네트워킹화하여 서로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창업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컨설팅, 회원 상호간 기술적·인적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 및 창업을 적극 유도.

바

다에 붙어 올라갈 줄 모르는 수은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코끝이 오늘도 빨갳다. 젊음으로 왁자할 줄 알았던 대학 캠퍼스도 추운 날씨와 방학으로 한산하기 그지없다. 좁고 텅 빈 이런 음산한 캠퍼스 한구석에서도 따뜻한 봄날을 준비하고 있을 예비 벤처인들. 그들의 산파역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Korea Student Entrepreneurs Network, 이하 코센) 사무실 역시 좁고 텅 빈 캠퍼스의 허름한 지하였다. 여섯 평 남짓의 사무실에서 코센의 유덕수 회장을 만나 보았다.

미 래 를 준 비 하 는 젊 은 이 들 의 모 임 , 코 션

“코센은 전국 250여 개의 창업동아리 연합체로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1999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학생 창업가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함양은 물론 창조적인 대학문화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생들의 ‘창업기지’가 바로 코센입니다.”

초롱같은 눈과 당찬 어조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가는 유덕수 회장 뒤로 3명의 대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다. 그도 그럴 것이 25개 대학생 창업기업과 246개의 대학 창업동아리의 7000여 회원을 3~4명의 상주인력으로 감당해내기란 분명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꿈과 열정이 있다.

“대학생들은 트렌드를 읽는 남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런 안목은 충분히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지만 대학생들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지요. 도전이 젊은이의 사명이라면 이들이 선배 벤처인들처럼 든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법인을 세워 기업을 경영중인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코센의 올해 목표라고, 그들은 2004 벤처코리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리딩벤처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꾀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전과 열정으로 2005년을 힘차게 날아오를 꿈에 부풀어 있다.

매년 2000여 명의 회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무사히 연락처하고 있어 코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크다고, 선배 벤처인들과 벤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유덕수 회장의 말로 첫 번째 새싹벤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훌륭한 정원사는 아름답게 자란 기존 나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씨앗에도 신경을 씁니다. 저희는 아직 씨앗에 불과하지만 사랑과 관심이라는 양분을 주신다면 좋은 나무로 성장해 우리들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